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

한결교회

거룩하고 선하고 아름다운



[개역개정]

1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2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3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4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임이요 5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요 6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임이요 7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임이요 8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임이요 9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요 10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11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12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표준새번역]

1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그에게 나아왔다. 2 예수께서 입을 열어서 그들을 가르치셨다. 3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4 슬퍼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5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땅을 차지할 것이다. 6 의에 주리고 목마른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7 자비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자비함을 입을 것이다. 8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9 평화를 이루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릴 것이다. 10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11 너희가 나 때문에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터무니없는 말로 온갖 비난을 받으면, 너희에게 복이 있다. 12 너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하늘에서 받을 너희의 상이 크기 때문이다. 너희보다 먼저 온 예언자들도 이와 같이 박해를 받았다."

한결같은 교회, 한결 더 나은 교회
 춘천시 삭주로 154 [우편번호 : 24234]

공휼의 마음을 복으로 받은 자(3)

마태복음 5:1~12(팔복강해18)

공의와 사랑. 정의와 자비는 충돌하거나 대립하는 개념이 아니라, 동전의 양면이나 한 몸처럼 실제로는 떼려야 뗄 수 없을 뿐더러, 더 나아가 공의 없는 사랑은 무질서와 방종을 낳고, 사랑 없는 공의는 상처와 파괴만 남기기에, 서로의 조화와 균형을 통해 "상호보완(相互補完)"의 관계를 이뤄야 마땅하다. 그러나 이 정도 내용으로 만족할 수 없다. 그렇다면 6절과 7절의 순서를 통해 얻을 수 있는, 또 다른 영적 원리와 교훈은 무엇일까?

무엇보다 하나님의 공의는 공휼과 자비의 마음을 반드시 동반하고, 공의와 정의의 줄기에서 활짝 피어나는 것이 자비와 공휼의 꽃이다. 또한, 공의의 심장이 힘차게 박동하면 할수록, 자비와 공휼의 피는 온몸으로 널리 퍼지기 마련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공의와 자비, 정의와 공휼이 어우러진 곳에 당신의 영광을 충만히 나타낸다. 이쯤에서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에게 조언의 내용을 다시 한 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 먼저, 다니엘이 공의를 행하게끔 촉구한 대상은 느부갓네살 왕이고, 더불어 왕이 공휼히 여겨야 할 대상으로 가난한 백성으로 지목했기에, 왕은 자신을 향해 공의를 적용하고, 다른 백성은 공휼을 적용하게끔 권고하는 말씀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즉, '자기에게는 엄격하고 남에게는 관대하라.' 하는 의미와도 같다. 그뿐만이 아니다. '가난한 백성에게 공휼을 베푸는 것이 '공의를 행하는 일'이라면, 이 말씀은 "가난하고 약한 백성을 자비롭게 대하는 것이, 바로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으로도 해석이 가능하기에, 정의와 공의를 구현하는 방법 중 하나가 "약자에게 자비와 공휼을 베푸는 것"임을 분명하게 알 수 있다. 다시 말해, 자기 자신은 공의로 판단하고, 타인에게는 공휼을 베푸는 것. 또한, 가난한 자와 약한 자에게 자비와 공휼을 베풀으로써 정의와 공의를 실천하는 것. 이것이 성경의 교훈과 복음의 정신을 제대로 구현하는 방법일 뿐만 아니라, 세

상의 생리를 거스르고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사람임을 나타내는 명확한 방식 중 하나임을 명심하자.

그뿐만이 아니다. 이미 수차례 언급했다시피, 가난한 자와 약한 자에게 공휼과 자비를 베푸는 것이 진정한 정의와 공의를 실현하는 또 다른 방법임을 명심하라. 무엇보다 공의의 중심을 잡고 공휼을 베푸는 삶이 무엇인지, 가장 뚜렷하면서도 너무나 아름답게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에 따라 당신 자신이 죄인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죄의 저주에 사로잡힌 죄인들을 향해서는 끝까지 공휼과 자비를 나타내셨다! 공의의 중심으로 공휼의 꽃을 피우고 싶다면, 육중한 십자가 형틀에 죄인 대신 공의의 심판을 받아 못 박히시고, 끝까지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셨던 예수님을 생각하라! 순결하고 죄가 없으시며, 완전한 의로 충만하신 분. 가장 큰 권위와 권세를 지니셨고, 완전한 힘과 지혜로 만물과 만사를 다스리시는 분. 그분이 우리 같은 죄인을 어떻게 다루셨는가? 공의의 중심으로 공휼을 베푸셨다. 당신의 공의를 정죄와 심판이 아닌, 먼저 공휼로 나타내셨다.

공의의 땅에 심겨 공휼의 꽃을 피우고, 풍성한 자비의 열매를 맺는 신자와 교회되기를 소원한다. 세상은 그런 교회와 신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공의와 공휼을 목격하고,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야말로 진정한 공의와 공휼을 담은 아름다운 소식임을 알게 될 것이다. 늘 자기를 공의로 판단하고 남을 공휼히 여기는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축원한다.

- 성경 본문과 설교 내용 중에 인상 깊었던 것을 떠올리고 나뉘보자.
- 진정한 정의와 공의는 어떤 식으로 열매를 맺어야 하는가?
- 정의와 공의가 그 열매를 맺는 까닭은 무엇인가?
- 예수님의 십자가는 어떻게 공의와 공휼을 함께 나타냈는가?
- 내 일상에서 공의와 공휼을 나타내는 구체적인 방법은 무엇인가?